

#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자기 성찰의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3월 한 달을 특별 기도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매일 저녁 9시 30분 두 가지를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 1) St David's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 2) 한국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3. 성경 정독 100일 운동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 속에서 위로와 격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범위/ 열왕기상 8장 - 열왕기하 7장).
4. 3월 11일 수요일 예배는 교회의 전체 찬양단이 함께하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5. 공동체 학습 방법 성경공부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서 본당 입구).
 

과목/ 풍성한 생명 (화/이성훈)  
신앙의 토대 (월/이태한, 목/이성철)  
시간/ 오후 7시 30분
6. 오늘은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찬송, 기도, 안건 토의).
7. 3040 세대들을 섬겨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8. 금요일 기도회가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찬양 6시 50분부터).
9. 뉴질랜드와 호주 통합 노회가 화(3일)-수(4일)까지 호주에서 개최됩니다. 이태한 목사는 이번 주간 노회 참석차 호주에 다녀옵니다(월-목).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3월 교회사역일지**  
3월 1일(주일) 사순절  
3월 11일(수) 연합 찬양 예배  
3월 25일(수) 1 남여선교회 주관 예배  
3월 29일(주일) 성찬 주일

**3월 기도 순서**  
3월 8일 (주일) 박덕철 장로  
3월 11일 (수) 김은희 집사  
3월 15일 (주일) 박병민 장로  
3월 18일 (수) 김자경 권사

**3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이광희, 박해정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09호 2020.03.01

##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pm  
청년예배 주일 3:15pm  
수요일예배 수 7:30pm  
금요일기도 금 7:00pm  
유아부 주일 1:00pm  
청소년부 주일 1:00pm

###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 청 년 예 배

오후 3시 15분  
금 주 기 도  
흥예진 자매  
다음 주 일  
김하은 자매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히브리서 4:15-16 -----	인도자
✧찬 송	----- 43장 -----	다함께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함께
찬 송	----- 279장 -----	다함께
대 표 기 도	-----	김철재 집사
성 경 봉 독	----- 창세기 3:20-24 -----	인도자
찬양대찬양	----- 갈보리산 위에 -----	나무삼자가찬양대
설 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	이태한 목사
찬 송	----- 304장 -----	다함께
헌 금 기 도	-----	인도자
교 회 소 식	-----	인도자
✧응 답 송	----- 310장 (1,4절) -----	다같이
✧축 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b>수 요 예 배</b>	오후 7시 30분	
기 도		김영옥 권사
성 경 봉 독		에베소서 1:1-2
설 교		은혜와 평강
		이성철 목사
찬 송		내 삶 드리리
주 기 도		다같이

## 선교란

### 이번 주는 루마니아 김유정 선교사 소식입니다.

2020년 한 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의 복이 동역자님께 넘치시기를 기도하며 늘 이곳 영혼들을 위하여 마음의 기도와 동역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도 비상 상태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사망자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하루속히 악한 바이러스 균이 소멸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곳은 여러 변화들이 있습니다. 루다리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로 나가서 일하면서 건축 기술도 배웁니다. 지금은 집시 마을에 말 수도 거의 없어지고 대신 자동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을에만 갇혀 움츠려 있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많이 변화되고 서유럽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의 삶에 느끼는 것들이 많았는지 돈을 모아 흙 집을 헐고 새로 집을 짓거나 수리도 하는 집시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아직 정교회의 영향으로 전도에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한 영혼 씩 주께 돌아오고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해외로 일을 떠난 교인들은 일터에서 전도도 하고 해외에서 만난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루다리마을 교회/** 2월이면 각 마을 교회 사람들이 해외로 일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 크리스티 형제는 2개월간 해외로 건축 노동 일을 떠났습니다. 대신 교회 사역은 페트레형제, 네오, 로디카 자매 선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네오는 피테쉬티 대학교 2학년에 다니고, 주일 두 곳 마을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는 공부상위권이라 2학기에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디카 자매가 저의 생일을 기억하여 생일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잊어 버리고 있었는데 먼저 연락을 하여 생일이라고 알려주더니 식사 준비를 하여 맛있게 먹었습니다. 함께하는 보람을 느낀 날이었는데 부부가 어디서 며칠 일을 하더니 돈을 마련하여 음식 준비를 한 듯하여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오그라다 교회/** 아디 형제는 해외에서 돌아온 후 차로 닭을 팔아 생활하고, 해외에서 번 돈으로 교회 내부 수리와 교회 울타리도 만드는 등 교회를 위해 봉사와 섬김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받기만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 확실히 달라지고 변화가 있습니다. 아직 작은 교회지만 마을 사람 대상으로 부흥회도 하고, 교회에서 기도 모임 후 자매님들이 각자 집에서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 대접도 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루다리 교회를 통하여 각 마을 루다리 집시 종족이 다 복음화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 생계를 위해 해외로 일을 떠난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늘 성령 충만하도록.
- 오이에쉬티, 룬툰다 교회에 헌신된 일꾼이 세워지도록.

###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진리를 드러내며 영혼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2. 한국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교만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도록.
3. 한국의 온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 나눔란

### 2020년 2월 23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한 중년의 고민> 누가복음 19:1~10

누구나 삶의 아픔이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서나 중추적 역할을 하는 3-40대의 아픔을 격려하기 원합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지위까지 오른 것으로 보아 중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 군사의 요충지, 풍요로운 도시에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삭개오에게도 고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첫 번째 고민은 키가 작다는 것이었습니다(19:3) 특별히 언급된 것으로 보아 장애 수준의 키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작은 키는 열등감의 근원이 되었고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삭개오는 성취지향적으로 살며 세리장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등감은 있습니다.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감추기 위해 자기를 확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19:4),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도리어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한(고후 12:9)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열등감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롬 8:28)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삭개오의 두 번째 고민은 죄의식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창기와 함께 죄인의 대명사였는데 굳이 삭개오를 가리켜 부자라고(19:2) 언급한 것은 동족을 착취한 부정 축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고 외롭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의 뜻과 다르게 살았기에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갈등하며 괴리감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성공하면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외롭고 죄의식에 가득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교회 직분으로 불리워질 때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괴리감 때문에 죄의식으로 괴롭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수록 더 고통스럽다면 현재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의식을 무력화시키는 백신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롬 8:1).

이런 삭개오에게는 예수를 보고자 하는 영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19:4) 소경 바디매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눈을 뗀다는 소식을 듣고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갈급함과 공허함을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19:5)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 출발의 근거가 됩니다. 영적 갈급함을 채우려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7:37) 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큰 방황 속에 있다 해도 주님은 빛이시기에 예수님만 만나면 어두움은 즉시로 물러갑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19:10) 창조주이시며 치료자이신 것을 믿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회복책입니다.

인생의 고민을 적고 그 옆에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답을 쓰며 일어서는 3-40대 중년과 같보리 온 교회되길 소망합니다.

### 금주의 암송 말씀

#### 창세기 3: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